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 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요엘**

네 마음을 찢으라

(요엘2장 1-27절)

원로목사 **이종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1. 잊을 수 없는 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와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11절)

요엘 선지자는 미래에 당할 일을 예언합니다. 요엘 1장에는 조상들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여호와와 날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므깃도 평원에서 선악간에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날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은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질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다”(2절).

하나님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 재앙의 날이며 하나님의 징조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갑자기 임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멧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 사건이지만 갑자기 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많고 강한 백성은 바벨론 군대나 앗시리아 군대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와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에 바위 뒤에, 산 아래 숨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으나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2. 진정한 회개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12절).

여호와와 날은 이제 임박한 미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엘은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요엘은 마음을 강조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비애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라고 합니다. 외형적인 변화도 회개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변화가 없는 외형적인 모습은 오히려 위선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짐승과 다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개별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또한 울며 애통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사시 51:17).

회개(repentance)와 후회(remorse)는 다른 뜻입니다. 후회를 한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30에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후회는 사람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심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회개는 마음이 변한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회심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회심하며, 마음을 찢고 변화시켜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럴 때 영적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13절).

사람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먼저 각성의 시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면 개인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를 통해 자기 갱신이 시작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마침내는 복음이 퍼져나가 사회가 개혁됩니다. 1907년에 이러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3.1운동으로 연결되어 물산장려운동, 금주, 금연운동이 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회개운동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15절).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족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며 옳은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처럼 마음을 찢어 회개할 것을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5월 21일) 126일만에 본당에서 드린 예배

2017성경 암송대회

베드로전서 1~5장

예선: 10월 1일(주일) 교회학교 별 / 본선: 10월 13일(금) 오후 7시

2017년도 성경암송 본문은 베드로전서 1-5장이다. 예선은 10월 1일(주일)에, 본선은 10월 13일(금) 오후 7시에 시행한다. 교육1국에 한하여 미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장, 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3장을 암송한다.

은 NIV(1984년 개정판)성경으로 한다. 한편 5월 31일부터 성경암송대회 전까지 수요일예배 설교를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목사들이 설교를 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암송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웨민홀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웨민홀에서 새벽기도회를 드린다. 교회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주중에는 인터넷영상으로 드리지만 토요일만이라도 교회에서 드리자는 성도들의 요청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웨민홀에서의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다.

도 교회 회복의 간절한 소망을 안고 교회 앞마당에서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그간 많은 성도들이 영하 10도를 뚫는 겨울에

김용진 선교사 극동방송 출연안내

6월3일 토요일 오후6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와 함께하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말라위에 파송된 김용진 선교사가 출연하여 선교현황과 말라위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시청 바란다.

여름철 목사복 착용

6월 1일부터 여름철 동안 우리 교회는 모든 교역자들이 반팔 상의 목사복 셔츠를 착용함으로써 정장을 대신한다.

교역자들은 반팔 목사복을 착용하고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심방예배, 스테반회, 권사회 월례회 등을 인도할 수 있다.



찬양예배시 요한계시록 강해가 은혜중에 진행되고 있다.

말씀 회복이 교회 회복!

요한계시록강해

이종윤 원로목사

주일 오후 5시 찬양예배 시

신천지(이단)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적발시 예배 및 설교 방해죄(형법 제158조),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2항),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수의 비유

씨와 토양들 I (마 13:1-9)

「예수의 비유」는 이종윤원로목사가 1984년 봉직하던 신학대학에서 안식년을 맞아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중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소재들을 직접 접하며 시공을 초월하신 진리를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말씀하십시오 영원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한 비유의 말씀이야말로 예수 교훈의 핵심이라 생각하며 귀국 후 교회 강단을 통해 강론한 것을 모아 출판한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는 열 처녀 비유와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가운데서도 매우 유명한 것이다. 열 처녀 비유가 천국이 도래하고 있는데 천국을 준비하되 충분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천국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 앞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해도 그것을 입에 넣고 씹어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항상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지 못하는 한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수용하는 태도, 토양의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들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본문에는 한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말씀이 나온다. 이 농부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다. 사도는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요 오늘날의 목사들까지도 여기에 해당된다.

‘씨’는 천국의 복음을 말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시기도 하며, 동시에 천국 복음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농부이시면서 동시에

씨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이면서 동시에 말씀 자체가 되신다. 본문에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 네 종류의 밭은 길가에 있는 밭(굳어진 밭), 가시밭, 돌짜밭,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밭이다. 밭이 네 개 있는데 좋은 밭은 하나 뿐이니 열매가 맺는 확률은 1/4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를 해도 100%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많이 뿌리면 그만큼 많이 거둘 수 있으니 전도는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은 주어지고 천국은 임재 했는데 오신 천국을 천국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씀도 천국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므로 천국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순례자는 5월 첫 주부터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를 맡아 사역하고 있는 윤수가목사님, 최근영전도사님 내외분을 만나보았다. (편집자주)

평소 존경하던 은사로부터 서울교회의 소식을 듣고 윤수가 목사님은 많이 놀라고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수 차례 탐방을 와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교회였는데... 그 때 느꼈던 예배당 분위기, 경건한 예배의식과 성경적 설교, 그리고 웅장한 파이프오르간이 새삼 떠올랐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종윤 목사님은 장신대 시절 신약학 강의를 하셨던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다. 마침 지난 해 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있던 터라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고, 교회학교 지도가 공식이라는 말을 듣고 깊은 기도 끝에 아내 최근영전도사와 상의하여 함께 서울교회를 섬기리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윤목사님 내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영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서울교회에 지원하게 된 동기라고 말한다. 또 와서는 교회 안팎의 어려움을 직접 보게 되었고 이런 가운데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에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교회학교를 섬기리라 다짐하였다.

서울교회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는 원래 분리된 기관이지만 지금은 연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윤수가목사님은 중고등부를, 최근영전도사님은 유초등부를 각각 맡아 사역하고 있다. 윤목사님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를 중고등부 사역 방침으로 삼고 있다. 말씀과 기도가 떠나서는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도 효과를 거둘 수 없고,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윤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다.

최근 연합된 중고등부는 그 어느 때보다 조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고등부 부장 정현구 집사님과 중등부 부장 김영희 집사님의 과하거나 모

자람 없이 지도교역자를 성심껏 뒷받침 해주며 학생들에게 헌신하고 있는 것에 무척 감사해 하고 있다. 중고등부는 2주전 아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윤수가 목사님은 본래 성악을 전공했으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였지만 지금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서울교회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허락하는 한 서울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보탬이 되는 교역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서 그곳이 오지에 있는 선교지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며 늘 겸손한 목회자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했다.

유초등부를 맡아 사역하는 최근영전도사님은 모태신앙인으로 판소리를 전공했고 문화선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명의 부르심이 있어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최 전도사님은 자신의 장점으로 친밀함과 활달함을 꼽는다. 그리고 무슨 일에도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말한다. 이전 사역지에서 영아부와 소년부 등을 지도한 경험이 있어 서울교회의 유초등부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최근영 전도사님의 사역 방침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백지와 같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심어주고, 아이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에 집중하여 지도하려고 한다. 유초등부는 7월 28일-29일에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수가 목사님과 최근영전도사님은 신대원 시절 결혼하여 슬하에 1남1녀(은성, 은별)를 두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자원하여 서울교회 교회학교를 섬겨주시는 두 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두 분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귀한 뜻을 이뤄드리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기도한다.

(취재 정리 허숙권사, 사진 유은경집사)



일백 스무엿새의 감격!

신통기 편사 (12교구, 시인)

비 바람에
꽃은 지고
여름 땀별 절벽에
두 손 들고 서 있는
서울의 인간 피
남은 그루터기의
타는 목마름이여

오늘이나 내일이나
애타게 기다리다
울어버린 너

한 모금 눈물
떠들다 떠들다
구름 기둥 되어 피어나고
한 조각 기도가
몽치고 몽쳐
불 기둥 되어 멈춘다

불의 쇠소리
순교적 파편이
천둥 우레 같은
지구 뿌리 뒤흔드는
선 가슴으로 불을 품는다

일 백일이 가고
일백 스무날이 가고
눈물 칼을 갈아 하늘 구멍 뚫고
지나는 소낙비에 옷을 적신 너

오늘은 청정한 깊은 샘
계시록 단물 마시며
허기진 배 움켜쥐고
마음껏 먹은 배부른 날

얼마만 이렇가
일백 스무 엿새 만에
광야 해마다 성막으로 들어가
거룩한 날

다윗 왕이 범게 찾아
웃이 벗어지도록 춤춘 기쁨보다
더 기쁜 승리의 날
일백 스무 엿새의 감격!
내 사랑 서울교회여



영·유아·유치부(지도 : 강남회 전도사)는 가정의 달 5월에 할아버지이자 스승이신 하인선 장로님을 초대하여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보고 - 미얀마



훌륭한
교수 요원
양성을 위하여

오랫만에 선교 소식 보내드립니다. 지난 수 개월 동안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격변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 먼저 신학 세미나 소식부터 전하여 드립니다. 지난 5월1일부터 12일까지 신학세미나에 인도 시킴에서 4명, 미얀마 장로교 신학교에서 2명의 사역자들이 수강하였습니다. 특히 인도 사역자들은 오는데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이들에게 여비를 다 제공해도 조금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특히 시킴의 레참이라는 43세의 장로는 처음 이 세미나에 참여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마워하고, 계속 참여할 뿐 아니라 사역자 한 명을 더 데려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시킴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특히 두 번째 주간에는 처음으로 기초 헬라이어 강의를 개설, 78세된 로버트 폴린 미국 선교사님을 강사로 초청하였습니다. 이 강의에 같은 미국인 C.C.C.선교사가 75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열심히 수강, 94점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에 목회자 및 신학교 교수요원을 양성하는 이 신학세미나는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인도 시킴주 사역자들은 교수들이 인도에 와서 강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지만 강사동원과 경비 및 숙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도에는 가서 강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원하여 강의할 교수가 있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시킴의 하말리아 신학교는 한국교회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먼저 그 학교의 교수 요원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2. 미얀마개혁장로교 신학교는 지금 방학 중입니다. 6월 첫 주간부터 제2학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3월 1학기가 끝날 때는 유감스럽게도 60명의 학생이 54명으로 줄었습니다. 6명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탈락하였습니다. 동남아 나라



신학교들은 좋은 신학생을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기존 교회가 부흥해야 좋은 학생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는 협력할 현지인 교회가 없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6월학기가 시작되면 신학교가 없는 독립교회를 찾아 협력하는 것을 연구 중입니다. 부족한 종을 위한 기도와 후원 다시 감사드립니다.

3. 태국은 비자 발급이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호산나북지법인의 자원봉사자로 일년 비자가 보장되지만 바로 일년 비자를 주지 않고 삼 개월, 이 개월, 일 개월 씩으로 나누어 주는데 그때마다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하루종일 이민국에서 대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일 또 비자 받으러 가야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16일
미얀마개혁장로교 신학교 학장 전호진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 지정기부금 이어져

지난 5월 18일 호산나대학(이하 '대학') 학부모회에서 170만원, 이동년학생 부모님이 200만원을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 운영과 교육시설 보강을 위해 지정 기부하였다. 또한, 유료팻에서 매월 대학에 애견사료를 기부하고 있다. 대학은 애견케어학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구입에 기부금을 소중히 사용하였다. 앞으로 대학은 자연친화적인 교내 환경과 애견관련 최신시설을 통해 애견교육 뿐만 아니라 애견에 관심이 많은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대학을 방문하여 애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호산나대학 학생들이 직접 만든 수제 애견 간식을 구입을 원하시는 성도들에게 택배 배달도 가능하니 필요한 성도들은 031)585-9184(호산나대학)로 주문하기 바란다.

호산나대학은 최근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애견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애견관련 교육과 기능습득을 시켜 애견교육, 애견훈련 및 관리 등의 애견관련 보조 인력을 양성하고자 우리나라 최초로 발달장애인 대학내 애견케어학과를 개설하였다.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 애견사위실



강남장애인복지관 애견케어 체험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6월3일(토) 사랑의 쌀, 국제올란바타르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지난 주 찬조 및 간식 협찬 : 김명화 권사, 이정연 권사, 정미연 권사, 이재운 집사·이용자 권사, 곽태수 권사, 소망부, 박진주 집사
- 이번 주일 식사 제공 : 김동진 집사, 박진주 집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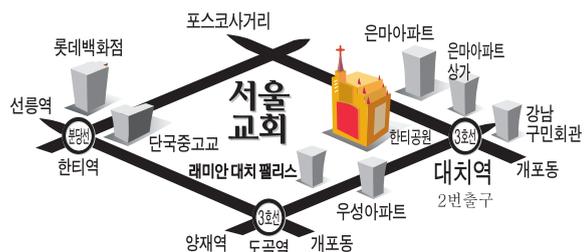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2. 노회와 총회와 한국교회가 항상 개혁되게 하옵소서.
3.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 조국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분 당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II, III, IV 층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웨 스트민 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 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분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분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